장수장애인체전, 탁구 · 론볼 종목서 전북 대표 선발

장수군장애인체육회(군수 최훈식)는 11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전라남도 일원(목포종합경기장 등)에서 개최되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이근우 선수와 백영복 선수가 전라북도 대표 선수로 선발됐다고 5일 밝혔다.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 30일 치러진 전라북도 장애인탁구 대표 선발전에서 장수군 장애인탁구단 여자단식 TT6체급 이근우 선수와 남자단식 TT3체급 백영복 선수가 각각 1위를 해 선발이 확정됐으며, TT5체급 김준오 선수도 선발이 확정이 됐다.

또한 론볼 종목에서는 B4종목에서 심재선 선수가 단식과 복식에 선발 확정돼 장수군선수단은 박남수 코치, 이근우, 백영복, 김준호 탁구선수, 심재선 론볼 선수가 전라북도 대표선수로 참가할 예정이다.

장수군장애인체육회 장애인탁구선수단이 참가하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1개 종목의 9,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는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축제로써 장수군 장애인체육회에서는 3년 연속 전라북도 대표선수로 출전하며 실력을 입증하고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북 대표선수로 출전하는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대회까지 부상없이 훈련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제38회 전북세무사회 정기총회가 5일 오전 11시 전주 웨딩팰리스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한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정한 조세제도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전북세무사회 정기총회 개최… 신임 회장에 최형주 세무사

제38회 전북세무사회 정기총회가 5일 오전 11시 전주 웨딩팰리스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는 회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 최형주 세무사가 제20대 전북세무사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최형주 신임 회장은 "세무사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납세자의 동반자 겸 안내자로서 최선을 다해 조세 전문가로서 공정한 조세제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에 대해 앞장서서 당당히 걸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세무사회는 회원 300명의 세무사들의 모임으로 산하에 전주지역 세무사회를 비롯한 6개 지역세무사회가 있는 직능 단체이다.

/김재훈 기자

고창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 우수사례 '최우수'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이사장 심덕섭)이 전국 지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문화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인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5일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주관으로 연린 제2회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에 참여한 117개 기초문화재단 중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창의적 도전 부문에서 최우수상인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작년에 재단과 책마을 해리가 협업하여 운영한 '창의적문화영재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유사 사례가 아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례로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았다.

심덕섭 이사장은 "재단이 고창의 세계유산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커뮤니티공간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가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발전협의회, '더위사냥' 삼계탕 나눔

전주발전협의회(회장 오정열)에서는 5일 효자4 · 5동 등 7개동 주민센터와 저소득 취약계층을 돌보고 있는 8개 기관에 어르신과 어린이들이 무더위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900만원에 상당하는 삼계탕 1,100팩을 전달했다.

전주발전협의회는 10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12년째 다양한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후원, 백미 지원, 김장김치 지원 등 다양한 후원과 환경정화사업 등을 통해 행복한 이웃사랑 및 주민화합을 실천하여 왔다 /김재훈 기자

류흥성 남원체육회장, "시설관리 · 안전 최선"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 시설한 실내수영장이 개장 1개월만에 1,000여명의 회원이 등록되며, 류흥성 남원시체육회장이 시민들의 기대에 맞추어 전국 최고의 수질관리와 시설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할 방안 모색에 나섰다.

남원실내수영장은 총사업비 110억이 투입돼 전체면적 2,965.7㎡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길이 25m의 6레인풀과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체온유지실, 탁구장 14탁, 헬스장, 북카페, GX룸, 편의시설, 주차시설 등을 완비하고 있다.

지난 6월 7일 시민과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체육시설 4개소(실내수영장, 실내탁구장, 실내배드민턴장, 족구장, 축구장) 개장했다.

불과 1개월만에 1,000여명의 회원이 등록하면서 시민들이 체육시설 4개소 운영에 대한 남원시체육회에 거는 기대가 매우 커 체육회에서는 시민들과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2층 GX-룸과 헬스장에 요가, 필라테스, 치어리딩, 근력운동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류흥성 체육회장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 시설관리와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규태 바리스타,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바리스타 종목 우승

진안 소재 꿈앤꿈꾸는카페 소속

진안군에 소재한 꿈앤꿈꾸는카페의 김규태 바리스타(사진)가 지난 6월 29일 열린 전북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바리스타 종목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운영하는 꿈앤꿈꾸는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김규태 바리스타는 이번 대회 출전을 위해 바쁜 일과 중에도 매일 연습에 매진하여 바리스타 종목 우승이라는 큰 영광을 얻었다.

김규태씨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라떼아트와 풍부한 크레마를 추출하는 본인만의 레시피로 심사위원의 극찬을 받으며 출전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이번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우승으로 가을에 열리는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출전권을 획득한 김규태씨는 "커피를 만드는 일이 즐겁고 재밌다"며 "전국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정소양 관장은 "커피에 대한 열정과 노력으로 큰 성과를 이룬 김규태씨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혈액원, 헌혈자의 날 개인 · 단체 유공 표창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원장 김성근)은 제20회 헌혈자의 날(6.14)을 기념해 헌혈참여 및 헌혈문화 확산에 큰 공을 세운 개인 및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창을 전달했다.

전북혈액원 김성근 원장은 헌혈은 그 누군가가 아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때 병상의 환자에게 희망이 되며 헌혈을 실천하는 헌혈자들이 진정한 이시대의 숨은 영웅이다. 전북혈액원은 헌혈자분들과 함께 도내 안정한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재훈 기자

남원시, 결혼이주여성 하트-맘 결연 진행

남원시는 5일 오전,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 친정엄마를 맺어주는 하트-맘 결연식 행사를 진행했다.

하트-맘 결연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결혼이주여성을 1:1 멘토-멘티로 맺어주어 타국에서 겪는 어려움과 다양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이날 행사는 축사, 결연증서 교환, 코스터 만들기 체험, 식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어, 갓 인연을 맺은 가족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친정엄마와 전통 음식 만들기, 문화유적답사 등으로 제2의 고향인 대한민국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서로의 소식을 나누고 생일, 출산 등 경사 시 선물 증정 등 돈독한 관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 알파벳어린이집 학부모,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

부안군 행안면에 위치한 알파벳어린이집 학부모 일동은 지난 4일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하여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134만5000원을 기탁했다.

알파벳어린이집 원장(송경래)은 "어린이집 원아들과 학부모들이 플리마켓을 열고 얻은 수익금 전액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하자는 학부모님들의 뜻에 따라 기부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권익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안 쓰는 물건을 서로 교환 · 판매하는 플리마켓 행사로 아이들에게 경제교육과 함께 판매 수익금을 기부도 할 수 있는 나눔 교육이 되어 매우 뜻깊은 결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전북 4-H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 고창서 개최

전북 4-H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가 지난 3~4일 이틀간 고창군 군립체육관과 공설운동장에서 14개 시군 4-H연합회 회원과 내빈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번 한마음 체육대회는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전라북도 4-H연합회와와 고창군 4-H연합회가 주최해 추진됐다.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윤준병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새로운 시작, 함께 도약, 청년이 여는 희망농업'을 슬로건으로 전북 4-H연합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4-H서약제창 등 개회식에 이어 팀별 줄다리기, 계주, 단체줄넘기와 같은 체육대회를 추진했다. 둘째날은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실천을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2023 세계문화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맞아 한마음체육대회를 우리 고창에서 개최할 수 있게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전국 장애인 보치아 선수권대회 성료

제7회 전북 전국장애인 보치아 선수권대회가 부안군장애인체육회(회장 권익현)가 주최하고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과 전라북도장애인보치아연맹(회장 박홍수) 주관으로 부안실내체육관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성료되었다.

국내 17개 시,도 전문 보치아선수 170명을 포함하여 심판 등 임원진 457명이 참가했으며 각 부 우승은 BC1남자부 전라북도장애인보치아연맹 김도진 선수, BC1여자부 포스코 박진숙 선수, BC2남자부 안산시장애인체육회 최병철, BC2여자부 충청남도장애인보치아연맹 정소영, BC5남자부 포스코DS 손옥존 선수, BC5여자부 전라북도장애인보치아연맹 이경희 선수가 영광의 입상을 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무주교육지원청, 뉴질랜드 영어체험 사전교육 실시

무주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 무주교육지원청 학력지원센터 2층 학습지원실에서 '무주 글로벌 해외 영어체험' 참가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차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김승기 무주교육장은 사전교육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2차 영어면접까지 통과해 선발된 학생 17명과 동석한 학부모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학생들은 이제 개인 신분이 아니라 무주와 전북,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분이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김 교육장은 이 자리에서 안전하고 교육적인 해외 영어체험을 만들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사전교육을 기획하고 준비한 교육청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아울러 사전교육을 통해 철저한 안전교육과 충분한 현지 적응 훈련을 할 것을 당부하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알 림

▲하계특강(7~8월) 스피치 · 웃음코칭 과정 모집= 모집기간: 10일(월)까지, 등록방법: 전화 또는 인터넷 접수, 강의장소: 전북일보빌딩 14층(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수업일정: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문의: 063-231-6669, 010-7304-5665